다시 한국도서관협회를 생각하며!

글 | 이 제 환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회장
부산대학교 도서관 관장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wleeh@pusan.ac.kr

20년 가까이 한국도서관협회(이하 한도협)의 회원이며 2009년부터는 한도협 부산 · 울산 · 경남지구협의회를 꾸려오고 있으면서도 필자는 여전히 한도협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한도협은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관 협의체인가? 혹은 사서직의 권익을 위한 전문직 단체인가? 그동안 한도협을 이끌어온 분들의 시각에는 전자의 모습이 진하게 투영되어 있지만, 한도협을 바라보는 현장 사서들의 시각에는 후자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녹아있다. 실상은 한도협의 뿌리가 되는 회원의 자격이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2013년 현재 1,300개에 이르는 각종 도서관들과 1,600명이 넘는 사서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니, 한도협은 기관 협의체와 전문직 단체의 모습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형국이다.

참조 삼아 한도협의 「정관」을 살펴보니, 제2조(목적)에 "본회는 .....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 · 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한도협은 사서직 단체로서 보다는 도서관 협의체로서의 정체성을 진하게 지니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동 「정관」의 제4조에 명시된 주요 사업들을 훑어보아도 한도협은 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도서관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도서관 협의체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 특히, 그 「정관」에 따르면, 한도협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단체'로서 그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서들은 한도협을 도서관 협의체로 보다는 사서 집단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로 여겨왔던 것일까? 사서직 단체이니만큼 당연히 사서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일을 최우선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어왔던 것일까? 아마도 그러한 믿음은 "도서관이 발전하면 사서직의 위상도 덩달아 제고될 것이다"라는 조금은 순진한 생각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관 협의체와는 별도로 전문직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다른 분야(가령, 의료계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달리, 우리 도서관계에는 별도의 전문직 단체가 존속해 오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서협회'가 설립되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보니 한도협을 '전문직 단체'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필자를 포함한 여러 사서들 사이에 은연중에 확산되어 온 것이 아닐까?

이렇듯 한도협을 사서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로 보아왔기에 한도협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은 늘 곱지 않았다. 사서 집단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한도협의 규모와 활동이 너무도 '영세하고 초라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서 집단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에는 한도협을 이끄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사고와 정치력의 부재가 너무도 안타까웠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기에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십여년 전 한도협이 필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자 나서게 만들었던 강연원고에서부터[1] 최근에

1) 편집자 주 : 필자는 강연원고 관련하여 ≪도서관문화≫(1999년 5 · 6월호)에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음.

> 사과의 말씀
>
> 1999년 4월 30일에 개최된 부산도서관연구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본인의 글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서자격증을 팔아 영세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한 부분은 본인의 불찰에 의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기에 이를 사과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그 동안 내 · 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한국도서관협회와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도서관계 내외의 청중 및 독자에게 오해를 유발케 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제환

발표한 한도협의 혁신을 촉구하는 학술논문에 이르기까지 한도협에 대한 필자의 애증 표현은 한도협을 사서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직 단체로 여겨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한도협을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은 필자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 한도협 집행부는 사서직 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도서관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듯 하며, 그들의 그러한 시각은 근자에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도협의 회장직이 과거로 복귀하여 문헌정보학과 교수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 '기관 협의체'로서의 성격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듯하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기간 동안 한도협은 사서 집단을 위한 권익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지고 정부 관련 부처의 도서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변단체로 탈바꿈해 버린 느낌이다. 하긴, 근자에 들어 한도협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정부가 발주한 위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면 정부가 나서서 한도협을 공공단체로 지정하고자 하였겠는가?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근자에 들어 한도협의 정책적 관심은 도서관의 신설을 통한 양적 성장과 일선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한도협 집행부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의 시설을 어떻게 하든 늘리려는' 노력과 '정부의 문화사업을 가능한 많이 대행하려는' 시도는 도서관정책과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관료들의 생각에 맞닿아 있다. 그 결과, 한도협의 노력은 나름대로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책방 혹은 문고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모처럼의 재정 지원에 호경기를 즐기면서 저자강연회나 인문학세미나 등의 일정잡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성과가 도서관의 주체인 사서의 직업적 위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한도협이 도서관 협의체로서의 역할에 몰입하면서 전문직 단체로서의 역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난 세월, 우리 사서직의 위상 변화를 표현함에 있어 이보다 적절한 말이 또 있을까? 특히 근자에 들어서, 전국 각지에서 사서의 직업적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면서 정규직 사서의 수를 줄이려는 음모와 편법이 난무하는 동안, 그래서 일선의 사서들과 예비사서들이 불안과 홀대에 치를 떨어야 했던 그 긴 시간, 그들이 낸 회비로 조직 운영비를 충당하는 한도협의 그림자를 '격전의 현장'에서 찾아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방은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에서조차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음모와 횡포가 만연하여도,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나 실무 책임자의 현장 방문 정도로 '자신의 책무'를 대신해온 사서직 단체가 바로 한도협이었다.

아무리 기관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것이 한도협의 존속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서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비에 보태는 전문직 단체가 사서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지금처럼 소홀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특히, 한도협의 현 집행부는 물론이고 역대 집행부가 늘 아쉬워하던 부분이 사서 집단의 전체 규모에 비해 한도협에 가입한 '사서의 비율'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점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현장 사서들의 협회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하였던가? 한도협이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현장 사서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길 여전히 바라고 있다면, 사서 집단을 위한 전문직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우선적으로 충실하여야 한다. 자신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지 않는 조직에 뉘라서 애정과 충심을 갖고자 하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접으면서, 오는 7월 1일 새로이 출범하는 한도협의 집행부에 당부한다. 공공도서관 사서직의 비정규직화는 이미 구조적 문제가 되어있고,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감소와 타부서로의 이동은 보편화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직의 충원은 요원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서직 내부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계의 리더십 변화를 갈구하는 현장 사서들의 마음을 새로운 집행부가 제대로 읽어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그래서 한도협이 사서 집단의 고충을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하여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제대로 된 전문직 단체로 거듭나 주기를 촉구한다. 이번 한도협 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어떤 분이 말하지 않았던가? 한도협이 전문직 단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해야할 과제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그 분 말대로,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이다.